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09년도 표어 ☉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 행동지침 ☉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하나님 말씀의 명료성

(시편 119:105-112)

The clarity of God's word

(Psalm 119:105-112)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길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The way Christians act must be in accordance with God's calling for us.

1. 바른 길을 찾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취질 때에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가도록 가르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1. To find the right way

The way that God desires for us is the right way. But we are not able to find that way for ourselves because of the darkness in the world. We can find the right way only when the light of God's word shines brightly before us. The Bible teaches us the way we should go.

We feel as if we can obey whatever the Bible says. However, we need to receive rebukes and corrections that come with it. We also need these two things in order to go the right way.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한편으로는 책망과 교정을 받게 됩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2. 바른 길을 택하고 바른지 않은 길을 거부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원수는 미워합니다. 주님은 신자의 위험을 막아주시는 은신처이며 방패이므로 신자는 주님을 붙잡기 위해 그의 말씀을 바라보며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행악자를 떠나는 일에 철저해야 합니다.

2. We must take the right way and refuse the wrong way

Those who love the Lord love His word and hate His enemy. Because the Lord is a refuge and shield which wards off danger, Christians should look to His word and keep it so that it might uphold Him. Moreover, Christians should keep away from evildoers completely.

Christians will unexpectedly become corrupted if they do not stay in God's grace. Therefore, we must recognize the corruption of the wicked and stay awake.

신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별 수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비운을 보고 자신을 경성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와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3. Looking at the salvation of God

The psalmist explains why the Lord listens to our prayer and saves us in the following three points.

- 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 ②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 ③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므로

- (1) Because God is love
- (2) Because we are His servants
- (3) Because now is the time that the Lord is working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127-128절).

Conclusion

"Because I love your commands more than gold, more than pure gold, and because I consider all your precepts right, I hate every wrong path" (vv. 127-128).

이 시대에는 절대 개념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기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사탄을 함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 기준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표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갈 수 없으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The world has no sense of absolutes or contrast in the world. But Christians have the absolute truth. Christians cannot love God and Satan at the same time. If they don't give up their worldly standard, they cannot hold to God's criteria. If we don't hate the wicked, we will not be going the right way, but serving two masters. We must hate what God hates. If not, we cannot learn to love Him. This means that we cannot walk the way that will bring true blessing.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참 복을 가져오는 길을 걸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By meditating on His law day and night, and yielding fruit in season,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come God's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9년 사명자 대회

10월4일(주) - 11월22일(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 11월16일(월) - 21일(토) 새벽 5시 (강사 이종윤 목사)

우리교회의 몇 가지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사명자대회는 우리교회를 설립하기 전, 50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사명을 받아 교회 설립한 것을 기념하여 매년 교회설립 기념주일 50일전부터 사명자대회로 모이는 것이다.

사명자 대회는 '기도'와 '전도'의 장으로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은 '24시간 연속기도회'로 모여 쉬 없이 기도하며,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두 번 정해진 공동기도제목과 개인기도제목을 가지고 열열히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를 드리게 된다.

또한 '태신자'를 품어 어머니가 모든 정성을 다하듯이, 작정한 이들을 50일 동안 기도와 전도를 계속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사명자대회의 클라이막스인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는 11월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6일간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이며 이종윤 목사가 강사로 선다.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대회를 통해 기도와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한다.

2009년 사명자대회의 주제는 총회주제인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로 정해졌으며 행동강령 및 공동기도 제목은 오른 편과 같다.

<행동 강령>

1.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2. 신앙의 대 잇기 모범을 보이자.
3. 빈약한 자 구제를 실천하자.

<공동기도 제목>

1. 주여, 주님을 섬기는 서울교회가 무지와 혼돈과 흑암으로 덮인 이 사회를 광명으로 인도하는 이웃의 등대되게 하소서.
2. 주여, 주님을 본받는 서울교회가 불신과 갈등, 원수를 맺고 분쟁하는 이 백성들을 믿음과 화평과 자유의 국민으로 이끄는 민족의 구원선이 되게 하소서.
3.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교회와 가정, 국가와 민족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4. 주여, 주님을 기뻐하는 서울교회가 성도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소서.
5. 주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서울교회 가정마다 아가페타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 한 가정 이상 후원하고, 교회학교 학생이 되어 천국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 소독제 비치

성도 간에 악수의 교제가 빈번한 교회는 최근 신종 플루(Flu) 예방차원에서 손 소독제를 교회 각 층에 비치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출입시 이용 바란다.

2010 섬김위원으로 임명 받으려면

2009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접수를 사무국에서 계속 받고 있다.

열린프로그램은 성도와 이웃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성경 공부도 하며 알찬 삶의 지식도 얻는 여가선용의 좋은 자리로 준비되어 있다.

현재 봉사하고 있는 다락방장(부),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들과 내년에 임명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모두 교구일꾼양성반, 교사양성반, 서울음악교실(구 찬양대양성반)을 수료하였거나 수료예정자만이 임명 된다.

교구일꾼양성반은 주일 오후 3시20분-4시30분(607호), 교사양성반은 주일 오후 3시20분-4시30분(609호), 서울음악교실은 주일 오후 1시30분-3시(601호)에서 열리고 있다.

다음 주에 마감하는 이번 열린프로그램에 내년 섬김위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수감을 기다린다.

계속되는 아가페타운 봉사

이번 주에도 아가페타운 봉사는 계속된다. 이번 주에는 15일(화) 비비전도회, 16일(수) 호산나학교 부모회, 18일(금) 13-13다락방이 각각 봉사에 나선다. 지난 주에는 7일(월) 수요기도팀, 8일(화) 교역자(선교사), 10일(목)호산나학교 부모회, 11일(금) 16교구, 12일(토) 베드로 선교교회와 제2청년부 회원, 족구팀, 김금준 집사의 2명, 백영자 권사, 박복순 성도가 각각 아가페타운 1day 봉사에 참여하였다.

계속되는 성도들의 봉사 가운데 아가페타운이 리모델링 공사가 속히 완공되도록 기도한다.

특별 이벤트가 있는 2009 열린바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슬로건 공모 시상

이번 2009 열린바자는 특별한 이벤트로 더욱 알차게 꾸며진다. 첫째, 이종윤 위임목사 저서 사인 판매 행사가 24일(목)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나눔카페(104호)에서 열리고 둘째, 팡팡!! 페스티벌-행사장에 오신 성도와 이웃 주민들이 구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스탬프존(Stamp Zone)에서 도장을 받아 오면 선물을 드린다. 셋째, 아가페타운 소개서 내의 인적 사항을 기입해서 추천함에 넣으면 지정된 시간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린다.(스탬프를 채운 바자 참여고객들에 한함)

위의 특별 이벤트의 추첨은 24일, 25일 오후 2시와 6시 하루 2회 추첨한다.(추첨장소 : 104호 나눔카페-상품 수령

:교회 사무국) 당첨자는 당일 오후 8시까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한편, 바자준비위원회에서 공모한 슬로건 당선자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한다.

대상에는 최영철 선생(7교구)의 "2009 서울교회 열린바자, 작은 사랑이 모여 큰 세상을 열어갑니다.", 우수상에는 이민호 집사(12교구)-"2009 서울교회 열린바자, 내 작은 사랑이 이웃에게는 큰 소망", 김찬진 권사(2교구) -"2009 서울교회 열린바자, 사랑의 섬김, 나눔의 행복!"이 각각 선정되었다.

2009년 가을시즌 - 제12회 화요정오음악회

10월13일(화) 정오 - 11월10일(화)정오 / 본당 3층에서 관람

성도와 이웃주민을 위한 2009년 가을시즌, 제12회 화요정오음악회가 10월13일(화)정오 본당에서 열린다. 화요정오음악회는 우리교회 본당에 파이프오르간을 봉헌하고 난 후 이 악기를 통해 주변에 기독교 문화를 보급하고, 오르간

연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기획하여 매년 2회(봄, 가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이번 시즌은 오르간 독주회로 열리며 10월13일(화) 정오 황양숙 오르간독주회를 시작으로 5주간 계속된다. 관람은 3층에서 한다.

일시	연주자
10월13일(화) 정오	황양숙 오르간 독주회(호남신학대학교 교수)
10월20일(화) 정오	손귀호 오르간 독주회(장신대 청빙교수, 인산제일교회 오르가니스트)
10월27일(화) 정오	차주연 오르간 독주회(미국 아리조나대학 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1월 3일(화) 정오	김현정 오르간 독주회(연세대, 침신대 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1월10일(화) 정오	강민정 오르간 독주회(서울신대 성공회대 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금주의 성구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3)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As surely as the sun rises, he will appear; he will come to us like the winter rains, like the spring rains that water the earth." (Hosea 6:3 [NIV])

이웃사랑, 탈북난민 돕기,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2009 열린바자를 준비하며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나눔의 장



이복규 장로 (바자 위원장)

우리교회는 교회 설립 이래 “모음과 나눔의 장”, “열린 바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장으로,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충만하고 교제가 풍성함으로 항상 새

로워지곤 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는 나눔의 행사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페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마련되는 바자회는 올해로 4년째입니다. 금년에도 바자의 수익금은 이웃사랑, 탈북난민 돕기와 아가페타운(호산나 전문대학과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



2008 열린 바자

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커다란 강을 이룹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의 모음과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고회를 넘긴 권사님들도 교구 식구들과 함께 하루 종일 빈대떡을 부쳐 판매 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 아끼던 귀한 소장품을 기꺼이 기증하고, 회사의 물건을 판매해 매출액 전체를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자에 판매할 가장 좋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생업을 뒤로 한 채 천리 길을 달려가시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금년 바자에도 온 교회와 이웃이 함께 참여하여 사랑을 전하며 행복한 나눔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국시민양성 -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며

제가 외우고 싶어서요



김은초 (초등부 4학년)

10월에 있을 성경암송대회를 위해 맨 처음 선생님께서 암송해보라고 하셨을 때에는 좀 싫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

는 순간, 이걸 언제 다 외우나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어도 한번 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전 엄마와 동생과 함께 하루에 2~3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싫증이 나기도 했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별로 많이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오빠들이 3~4장을 외우는 것을 보고 전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다잡고 열심히 외웠고, 외우다 보니 참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6절입니다. ‘(5절)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나라는 말씀이 정말 은혜롭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꼭 예수님이 저에게 특별히,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외우다 보면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엄마한테 성경암송대회에 꼭 나가야 되냐고 몇 번이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변함없이 “응”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제가 외우고 싶어서 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회의 결과가 어떻든 말씀을 암송하며 저는 이미 예수님께 1등상을 받았습니다.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며

땅끝을 향하여

김인서 현혜옥 선교사 (아르헨티나 파송예정)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1:8)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불과 한 두 해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시119:105)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준비하고 의지했던 길을 끊으시고, 서울교회를 통하여 과송을 받게 해주심은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특별한 신지시하심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10년(1987~96)을 보냈던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을 때 현지어를 말할 수 있고, 현지인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다지 준비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 적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역자로 바로 서지 못한 때문임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3개월간의 선교사 훈련을 시작한 최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찌기 우리를 아르헨티나로 보내셔서 준비시켜 주시고,, 자아가 깨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연단시키신 후에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

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이 서울교회에서 이종윤 목사님의 지도로 마무리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에 1. 성경에 바로 선 교회를 세우기, 2. 교회의 찬양 사역자를 양성하기, 3. 해체되어가는 가정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를 위하여 신학과 목회로 저 김인서 선교사를, 현지에서 중고등학교와 교회음악을 공부하도록 아내인 현혜옥 선교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가정 사역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1. 기도의 동역자, 2. 물질의 후원, 3. 말씀과 전문 영역의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서울교회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또 훈련기간 동안 선교지에 두고 온 딸(14)과 아들(10)도 주님께서 친히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고후12:9) 아르헨티나 선교에 크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09년 성경암송대회

2009년 성경암송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회의 범위는 로마서 1장-5장까지이며 10월18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여기서 선발된 이들이 10월23일(금)에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여 선의 경쟁을 하게 된다.

만민에게 전도 - 23사단 진중 세례식

십자가 글병으로!

9월5일(토) 오전 7시 30분 비전2020(위원장 이갑진 장로) 위원 22명은 박노철 목사님을 모시고 23사단을 향해 출발하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사도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였던 심정으로 영동고속도로를 달려 단숨에 강원도 삼척에 도착한 비전2020 운동본부 23사단 철벽부대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사단 군종참모인 이석영 목사님과 연대의 군종목사님들의 뜨거운 영접을 받았다.

이날 세례식에는 수세자 75 명을 비롯하여 총 145 명의 장병들이 함께 예배와 세례식에 참석하였다. 비전2020 위원들의 찬양에 이어 박노철 목사님의 마태복음 3:13-17에 따른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이라는



제하의 설교로 장병들은 큰 은혜를 받고 세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달았다.

장병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큰 소리로 복창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다.

우리 교회는 준비한 성경책과 휴대용 랜턴

을 세례 받은 장병들에게 나누어주고 피자와 콜라를 간식으로 주며 장병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든 병영생활 중에 행해지는 진중 세례식의 또 다른 의미도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더 많은 부대에서 진중 세례식이 거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허숙 권사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임범창 집사 부녀의 클라리넷과 플루트 연주로 들려진다. 3부 예배 아멘 관현악단을 지휘하고 있는 임범창 집사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와 러시아 게르친 국립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현재 인천 클라리넷 앙상블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자녀인 임혜원 성도는 러시아 상페테스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수학하였으며 현재 아멘 관현악단 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오늘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P.P.Bilhom)의 예 2곡으로 찬양 드린다. 피아노 반주는 박재원 성도가 수고한다.

노엘 취주악단 연주 시작 오늘부터 찬양예배 전 본당에서

오늘부터 노엘 취주악단(지휘 임훈규 장로)의 연주가 시작된다. 노엘 취주악단은 2층 본당에서 찬양예배를 시작하기 전 오후 4시20분부터 45분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며 성도들과 함께 찬송으로 찬양예배를 준비한다. 모든 성도들이 미리 모여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한다.

천국시민양성 - 목회자신학세미나

성경에서 두 번째 위대한 이야기

3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지난 9월7일(월) 개강하였다. 서울교회와 함께 시작된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이 민족 앞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영혼구원의 사명으로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민족복음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18년째 한 학기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한국교회 성장과 연합을 위한 교파 신학의 정체성'이다. 1교시는 '성경에서 두 번째 위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종윤 목사의 은



헤로운 '소선지서 강해'로 시작되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33년의 생애, 즉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호세아의 이야기를 '두 번째 위대한 이야기'라 한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목사는 설파하여 참석한 목회자들로부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받았다.

2교시는 대한성공회 전 주교인 정철범 박사의 '성공회 신학의 정체성'이라는 특강으로, 정 박사는 영국교회의 역사를 초기부터 돌이켜 본 후 영국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어떻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태동되었는지 균형 잡힌 역사 감각을 가지고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 날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달려온 목회자들은 웨스트민스터홀을 가득 채우며 성향을 이루었다.

편집부: 유태서 집사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7일(목) 합신대 체플에서 설교한다.
- 안용주 전도사: 목사 안수 9월10일 미주노회 영락교회
- 특려: 8교구 박원서 한소영 성도 가정
- 개업: 구두매장 무크 대리점(10교구 한종호 김미혜 집사)주소:춘천시 조양동 49-4 T.011-754-3577
:나우치과 2교구 박희경, 김수현 집사(면목본동 사무소 맞은 편) T. 432-2885
- 주간식당봉사: 제1권사회(9월 13일) 제2권사회(9월 20일)
- 금주의 식사: 오재면 성도 박순자 권사 가정(범사에서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3. 탈북자와 장애인 돕기 열린바자 위하여
4. 목회자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살롬경로대학, 주부대학 등 열린프로그램 위해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